

A Study on Beauty of Human Body of Femme Fatale according to Gender Identity and Relationship of Clothes Style

Chung, Min-Sun* · Chung, Heungsook Grace

Ph.D. Candidat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beauty of human body as a new aesthetic value and find the relationship with the clothes by examining the femininity and inherent meaning expressed in Femme Fatale appeared in the end of the 19th century. In order to accomplish the above purpose in this study, the following researches were performed in order to find the common validity of the beauty of human body classified by the Femme Fatale and relationship with the clothes.

First, through the general consideration of the Femme Fatale, the symbolic meaning and expression described in the artistic history were investigated.

Second, the sexual symbolic meaning which the Femme Fatale carries was researched through Freud's theory.

Third, the femininity described in the Femme Fatale was classified and the ideal beauty of human body expressed in the Femme Fatale was analyzed. In the meantime, the aesthetic value that the Femme Fatale carries was also examined by connecting the clothes.

Fourth, the value of the Femme Fatale as the aesthetic element in order to show the ideal femininity was considered.

Through the above various consideration, the meaning as the aesthetic value which the Femme Fatale carries and the connecting feature between the beauty of the ideal human body and the clothes could be found.

First of all, the Femme Fatale can be seen as

the consequence of the female image derived from the thought that the man is dominant over the woman. The thought that the man is dominant over the woman tells the psychological uneasiness caused by the threat of the power in the political position and the sexual desire on the woman. Accordingly, the femininity that the Femme Fatale suggested by the basic desire of the mankind in order to show the beauty to the other sex can be regarded as the important cultural phenomenon that can propose the ideal femininity.

By the way, in the point that it reversely reflects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desire that the woman may have by showing the uneasiness as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though it is one of the part of the thought that the man is dominant over the woman, it helps to avoid the danger that the ideal femininity may incline to a certain direction. This also enables to classify the Femme Fatale on the femininity by implying the various meaning and value. Meanwhile, it is connected with the aesthetic pursuit on the Eroticism and consequently it can express the meaning as the new aesthetic value.

Femme Fatale의 인체미와 복식스타일의 연관성

정민선* · 정홍숙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19세기말에 이르러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참여가 높아지자 일각에서는 새로운 논점의 대상이자 학문으로서 여성의 성 정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 중 여성의 성 정체성 논란의 일환으로 19세기말 등장한 팜므 파탈(Femme Fatale)을 들 수 있다. Femme Fatale은 두드러진 관능성으로 남성에게 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요부를 칭하는 말로써 남성들에게 쾌락과 관능을 줌과 동시에 위험과 파멸을 가져오는 여성을 말한다. 이것은 남성의 성적욕구를 여성의 고정된 이미지로 은유시키고 남성위주의 관점에서 여성을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하여 미학적으로 은폐시킴으로써 여성의 성적특징에 대해 부정적 사고를 갖게 하는데 이용되었다.

본 연구는 세기말에 등장한 Femme Fatale의 여성성과 내제된 의미를 살펴봄으로서 새로운 미적 가치로서 인체미를 분류하고 복식과의 연결성을 찾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한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Femme Fatale이 예술사를 통해 보여준 상징적 의미와 표현에 대해 고찰하였다.

둘째, Femme Fatale이 갖고 있는 미적 가치를 인류의 본능에서 오는 필연적 현상으로 보기 위해 Freud의 이론을 통해 Femme Fatale이 갖고 있는 성적 상징적 의미에 대해 연구하였다. 셋째, Femme Fatale에서 보여준 여성성과 연결하여 이상적 인체미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Femme Fatale이 갖고 있는 내제된 양면적 성격을 정리함으로써 이상적 여성상을 보여주기 위한 미적 요소로서의 Femme Fatale의 가치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Femme Fatale 은 세기말적 현상으로 19세기말 이후 등장한 부정적 성적 대상인 요부의 여성상으로서 역사적 사회적 배경 속에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유행되었으며 이는 예술 및 사회 전

반에서 나타난 여성성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었다.

둘째, 정신분석학적 관점에 의해 Femme Fatale의 탄생과 내제된 상징적 의미가 인류의 성적 본능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복식이 갖고 있는 성적 상징성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Femme Fatale이 갖고 있는 성 정체성은 남성적 입장과 여성적 입장으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으며 이는 Femme Fatale이 갖고 있는 남성 중심의 여성에 대한 전통적 시각과 함께 feminism적인 입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Femme Fatale이 남성 중심의 부정적 시각에서 나온 결과물임과 동시에 여성 해방운동에 의한 여성의 달라진 femininity에 의한 결과물임을 확인하고 보편적 미적 가치로서 간주하였다.

넷째, 보편적 미적 가치로서 Femme Fatale에서 나타난 여성성을 통해 인체미를 5가지(자연으로서 인체, 성적 구분으로서 인체, 남성으로서 인체, 아이로서 인체, 외계인으로서 인체)로 분류하였다.

위의 결론들을 통해 Femme Fatale이 갖는 미적가치로서 의미와 이상적 인체 미와 복식과의 연결성을 찾을 수 있었다. 우선 Femme Fatale은 남성중심의 사고에서 나온 여성의 이미지로서 볼 수 있다. 여기서 남성중심의 사고란 권력의 위협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과 여성에 대한 성적 환상에 대한 욕구를 말해 준다. 한편, 남성 중심적 사고의 일환임에도 역으로 여성의 갖고 있는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상적 여성성이 부정적으로 편중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준다. 이것은 이러한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내포함으로써 여성성에 대한 Femme Fatale적 분류를 가능하게 도와준다. 한편, Eroticism에 대한 미적 추구하고 결부되면서 새로운 미적 가치로서 의미를 같이 할 수 있다.